

http://dx.doi.org/10.17703/JCCT.2019.5.4.43

JCCT 2019-11-6

레저문화 소비시장의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terminants of Expenditure in Leisure Culture Consumption Market

이승길

Lee Seung-gil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레저용품 소비시장의 지출결정요인을 추정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중 6597개의 표본을 이용하였다. 지출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Tobit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스포츠용품에 대한 지출결정요인은 결혼여부, 교육수준, 연령, 가구 내 세대수, 주택소유여부, 소득수준이 스포츠용품 지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등산용품, 낚시용품, 사냥용품과 같은 레저용품의 지출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연령, 가구 내 세대수, 주택소유여부, 소득수준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계속되는 자료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지출결정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추정하기 위한 심리적인 특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주요어 : 레저용품, 소비시장, 지출, 토빗모형, 결정요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xpenditure determinants of the leisure goods consumption market.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6597 samples of household trend survey data were used. Tobit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expenditure determinants. As a result of analysis, expenditure determinants for sporting goods were influenced by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ge, number of households, housing ownership and income level. The variables influencing spending on leisure items such as mountain climbing, fishing and hunting items were influenced by gender,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ge, number of households, housing ownership and income level. The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as policy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leisure culture.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household trend survey is a yearly survey through a nationwide survey, but despite the fact that it is reliable data, it is not possible to apply various variables such a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o estimate consumer expenditure determinants more concretely. Has a limit of.

Key words : Leisure Goods, Consumer Market, Spending, Tobit Model, Determinants

1. 서 론

많은 연구결과에서 여가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 예컨대, Campbell, Converse & Rodgers(1976), Riddick & Stewart(1994)에서도 여가의 중요성과 인간의 삶에 관한 연구결과들

*남서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접수일: 2019년 9월 17일, 수정완료일: 2019년 10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7일

Received: September 17, 2019 / Revised: October 02, 2019
Accepted: October 07, 2019
*Corresponding Author: nadachasha@nsu.ac.kr
Namseoul Univ, Korea

이 주장되어 왔으며 여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Driver & Bruns, 1999)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가활동을 통한 체력증진, 근력 강화 등은 신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해소, 긴장감 완화 등 심리적인 편익, 자존감 향상 등과 같은 분야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yu & Lee, 2014). 이처럼 여가활동과 삶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가는 삶의 한 방법(Goodale & Godbey, 1988)이라고 주장되고 있으며 개인에 있어서도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도 여가는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여가의 분류는 다양한 활동분야와 활동의 특성에 따라 수많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가를 분류하는 방법은 정부나 정책연구기관 그리고 여가와 관련된 전공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이처럼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 의해 여가의 분류가 다양화되는 이유는 여가와 관련된 독립변수로 적용되는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적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연령에 의한 연구, 성별에 의한 연구 혹은 도시 거주자나 시골거주자 등 연구 상황과 정책방향에 따른 목적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여가의 정의가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등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여가로 고려하는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가의 분류는 크게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의 여가에 대한 중요성과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가에 대한 그 연구범위 또한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 레저용품 소비시장에 있어서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추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현대인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출동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여가정책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연구에 대한 추가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이론적 고찰 및 연구모형

1. 이론적 고찰

소비자들의 레저용품 지출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 많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레저용품 지출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래전에 진행되었던 Dardis et al(1981)의 연구에서는 미국 노동부의 1972년부터 1973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레저지출 요인을 추정하고 있다. 이 연구의 구조적 내용을 살펴보면 종속변수는 레저에 대한 총지출금액(휴가, 클럽회비, 스포츠기구, 영화표, 스포츠관람비 등)이 되며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레저지출금액은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변수에 긍정적인 영향관계에 있으며 인종에 따라 레저지출에도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도시가구와 시골가구에서도 지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Dardis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Tobit모형을 이용하여 레저지출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결정요인 추정결과 소득, 가구원의 수, 교육수준이 긍정적인 영향관계에 있으며 인종은 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Huh(2000)의 연구에서는 은퇴한 가구와 은퇴하지 않은 가구 각각을 표본으로 이용하여 레저지출에 대해 Double-hurdl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은퇴는 전체 레저지출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은퇴함으로써 가계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레저지출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레저에 대한 총지출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레저지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ee(2014)의 연구에서는 2013년 한국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9926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스포츠용품의 수요모형을 설정하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모형은 더블허들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스포츠용품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1단계 요인(Probit모형적용)에서는 블루칼라, 맞벌이가구, 거주지 변수는 레저스포츠용품 수요모형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유의수준 10%)인 경우는 부(-)의 영향력이 있으며,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가구(1% 유의수준), 화이트칼라(5% 유의수준), 대졸(5%

유의수준), 소득이 높은 가구(1% 유의수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1% 유의수준)는 레저스포츠용품 구매수요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가구 내 취업인원이 1명 이상인 가구는 1% 유의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단계분석인 지출수준의 결정요인분석에서는 성별, 결혼유무, 직업, 교육수준, 연령, 맞벌이가구, 가구 내 구성인원, 가구 내 취업인원, 거주지 변수 등은 지출수준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비울척도로 변수를 적용한 소득이 높은 가구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만이 각각 10% 유의수준과 1%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연구모형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레저지출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회귀모형이나 더블허들모형 혹은 토빗모형 등 다양한 분석모형이 적용될 수 있다. Dardis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레저지출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결정요인 추정하였지만, 한편으로는 Huh(2000)의 연구에서는 더블허들모형을 이용하여 지출결정요인을 추정하고 있다. 동일하게 Dardis et al(1981)의 회귀모형을 이용한 연구 또한 찾아볼 수 있다.

각각의 연구모형은 소비자의 지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연구모형이 달라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감안할 때 적절한 통계분석방법으로는 Double-hurdle모형과 Heckman모형과 같은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을 들 수 있다(Bockstael, Strand, McConnell & Arsanjani, 1990).

Double-hurdle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지출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는 특정 상품을 구매하였는지 혹은 구매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Probit모형을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2단계에서는 특정상품에 대해 구매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구매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소비량이 되는지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의 특징으로는 구매한 경우에는 상품에 대해 구매를 하였는지 혹은 구매에 참여하지 않았는가를 1단계에서 추정할 수 있으며 2단계에서는 참여결정요인과는 별개로 구매를 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구매를 하였는가에 대한 소비량결정요인으로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ragg(1971)에 의해 고안된 Double-hurdle 모형은 관련 재화에 대한 수요 분석에 있어서 참여수요와 소비량결정의 구분이 중요한 문제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 다시 말해 Double-hurdle모형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시장참여와 소비량결정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모형에 대해 서로 상이한 변수들과 파라미터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허용된다. 즉, Double-hurdle모형에서의 기본가정은 정(+)의 소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주어진 재화에 대해 잠재수요자가 되어야 하고, 둘째 해당재화를 실제로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다(Cragg, 1971).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모형은 토빗모형이 된다. Tobin(1958)에 의해 제안된 Tobit모형은 종속변수가 취하는 값의 범위가 부분적으로 삭제 또는 절삭(truncated)되어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이나 이하에서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회귀모형이다(Maddala, 1992). 또한, Tobit모형은 모든 소비자가 주어진 재화에 대하여 잠재수요자라는 점 그리고 시장참가와 소비량 결정은 같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따라서 참여수요(participation demand)와 지출수준(expenditure level)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하고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절한 추정모형이 되며 참여와 소비량 결정 간의 구분에 특별한 의의를 두지 않는다. 즉, 종속변수가 일정한 범위의 값, 예컨대 0 이상의 비음수를 가진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이다(Greene, 1995). Tobit모형은 관광과 여가 분야의 소비자 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하게 적용되어왔다. 예컨대, 여가(Cai et al., 1995), 외식(Ham, Hwang & Kim, 2004), 생태관광(Leones et al., 1988)등을 열거할 수 있다.

III.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6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현대 한국사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세한 자료

를 제공하기 때문에 레저와 관련한 가구의 특성을 추정하고 분석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레저용품의 지출비용 중 스포츠용품에 대한 지출과 등산, 낚시, 사냥용품에 대한 지출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유무,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를 적용하였으며, 가구의 특성으로는 주택소유여부, 가구 내 세대수 등을 변수로 적용하였다. 표본은 6597개를 적용하였다. 독립변수중 성별, 결혼유무, 연령, 교육수준, 세대구분, 주택소유여부 등과 같은 변수들은 기준변수(reference variable)를 설정하고 1과 0으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의 레저용품에 대한 지출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는 방법이 된다. 소득변수는 통계청 조사지에 기입된 경상소득에 가중치 값을 곱한 후, 이를 다시 가중치 평균으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직업변수의 경우, 통계청에서 분류한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사무종사자를 화이트칼라 직업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서비스 종사자·판매종사자·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블루칼라, 그리고 직업군인과 기타 직업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에 대한 정의 및 분류 그리고 분석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IV. 실험 및 결과

토빗모형을 적용하여 스포츠용품에 대한 지출결정요인추정 결과(표2 참조)를 보면 우선 성별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는 스포츠용품 지출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여부의 변수에 있어서는 기혼인 변수가 1% 유의수준에서 스포츠용품의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변수를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 그리고 대학원 이상 수준으로 분류하여 적용한 결과 가구주가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스포츠용품의 지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력(10% 유의수준)이 있으며 가구주가 대학원 이상을 졸업한 가구는 5%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변수의 경우에는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으로 분류

하여 스포츠용품에 대한 지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30대인 경우에는 1%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40대와 50대 역시 1%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가구주에 있어서는 5%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변수의 경우에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분류하여 스포츠용품에 대한 지출의 영향력을 검증하였지만 두 변수는 스포츠용품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에 있어서 두세대와 세세대로 분류하여 스포츠용품에 대한 지출의 영향력을 적용한 결과 두세대가 살고 있는 가구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세대가 살고 있는 가구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소유한 가구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로 분류하여 스포츠용품에 대한 지출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1%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급여를 변수로 적용한 결과 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1% 유의수준에서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산·낚시·사냥용품지출에 대한 영향력의 검증 또한 운동용품지출의 영향력검증의 변수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우선,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력(1% 유의수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결혼여부 변수에서도 가구주가 기혼인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력(1% 유의수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각각 분류하여 등산·낚시·사냥용품 지출에 대한 영향력의 검증에서는 어떠한 변수도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가구주가 대학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마이너스(-)의 영향력(5% 유의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변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30대부터 60대 이상의 전 세대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력(1% 유의수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대의 지출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0대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출에 대한 그 영향력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변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모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의 세대의 경우에는 두세대가 살고 있는 가구는 부정적인 영향력(10% 유의수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집을 소유한 가구는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력(1% 유의수준)이 있으며 더불어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력(1% 유의수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변수의 정의

Table 1. Definitions of variable used (N=6597)

	Variables	Definition	Mean (Standard deviation)
Dependent variable	Climbing · Fishing · Hunting goods	Expenditures	1.238 (1.279)
	Sports goods		2412.06 (13342.7)
Independent variables	Gender	Male=1, else=0	0.757 (0.428)
	Marital status	Has a spouse=1, else=0	0.695 (0.46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degree=1, else=0	0.102 (0.303)
		University degree=1, else=0	0.358 (0.479)
		Graduate school degree=1, else=0	0.316 (0.465)
	Age	2~30s=1, else=0	0.220 (0.414)
		40s=1, else=0	0.296 (0.456)
		50s=1, else=0	0.261 (0.439)
		Over 60s=1, else=0	0.156 (0.363)
	Job	White-colour=1, else=0	0.326 (0.468)
		Blue-colour=1, else=0	0.669 (0.470)
	Household characteristics	Two family generations	0.587 (0.492)
		Three family generations	0.032 (0.177)
House owner=1, else=0		0.674 (0.468)	
Income	Monthly income(WON)	4.338e+006 (5.201e+006)	

표 2. 토빗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

Table 2. Estimated Tobit model (N=6597)

Variables	Sports goods	Climbing · Fishing · Hunting goods
	Coef. (t-ratio)	Coef. (t-ratio)
Male	-0.029 (-0.176)	0.757 (3.133)
Married	0.754 (4.739)	0.670 (3.001)
High school degree	-0.427 (-1.914)	0.384 (1.326)
University degree	-0.090 (-0.655)	0.096 (0.479)
Graduate degree	0.313 (2.197)	-0.538 (-2.460)
30's	2.352 (7.445)	3.084 (7.012)
40's	2.635 (8.422)	2.558 (5.895)
50's	1.440 (4.674)	2.108 (4.987)
Over 60's	0.640 (1.993)	1.633 (3.798)
White-color	0.324 (0.389)	-1.551 (-1.553)
Blue-color	0.142 (0.171)	-1.477 (-1.493)
Two generations	0.255 (2.088)	-0.381 (-2.173)
Three generations	0.084 (0.311)	-0.332 (-0.811)
House owner	0.482 (4.421)	0.510 (3.073)
Monthly income	6.705e-008 (7.725)	6.807e-008 (5.061)
Constant	-5.731 (-6.489)	-6.260 (-5.757)
Sigma	2.874 (55.942)	2.874 (55.941)
Log likelihood function	-6055.427	-4717.302

a.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레저용품 소비시장의 지출결정요인을 추정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출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토빗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표본은 6597개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스포츠용품에 대한 지출결정요인은 결혼 여부, 교육수준, 연령, 가구내 세대수, 주택소유여부, 소

득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등산용품, 낚시용품, 사냥용품과 같은 항목에 지출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연령, 가구내 세대수, 주택소유여부, 소득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먼저 남성이 여성보다 보다 많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구주가 기혼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스포츠용품이나 등산·낚시·사냥에 필요한 용품지출에 보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스포츠용품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등산·낚시·사냥에 필요한 용품에 대한 지출은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포츠용품과 등산·낚시·사냥용품의 지출결정요인을 추정하기에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직업변수를 적용할 경우 적합한 변수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직업변수의 적용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구분하기보다 변수의 범주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유형의 한 부분이 되는 스포츠용품과 등산·낚시·사냥용품에 대한 지출결정요인을 추정하였지만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스포츠용품의 구체적인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다시 말해 스포츠의 경우에도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스포츠용품으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통계청의 자료가 조사를 위한 스포츠용품의 구체성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스포츠용품의 구체적 분류를 위해서는 통계청자료가 아닌 직접적인 면대면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도 지난 1년간의 지출에 답하기 위해서도 회상오차(recall bias)와 같은 잘못된 가능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등산·낚시·사냥과 같은 레저용품 지출이 각각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하나의 변수로 묶어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것 또한 연구의 한계점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정형화된 설문지에서 매년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는 정부기관의 특성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은 시계열변수를 이용한 연구결과와 비교가 필요하며 비교분석을 통해 수요 및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는 Tobit모형을 적용하였지만 표본선택모형이 Heckman모형이나 Double-hurdle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할 경우에는 어떠한 모형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비교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요인이나 기타 요인과 같은 내용을 독립변수로 적용할 수 없었다는 연구의 한계점도 밝혀둔다. 이와 같은 다양한 모형의 비교 또는 독립변수의 적용은 향후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기대를 해본다.

References

- [1] Bockstael, N., Strand, E., McConnell, K., & Arsanjani, F.(1990). Sample selection bias in the estimation of recreation demand functions: An application to sportfishing. *Land Economics*, 66(1): 40-49.
- [2] Cai, L. A., Hong, G. S. & Morrison. A.(1995).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for tourist products and services.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4(4): 15-40.
- [3] Dardis, R., Derrick, F., Lehfeld, A., & Wolfe, K. E.(1981). Cross section studies of recreation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 181-194.
- [4] Dardis,, R, Soberon-Ferrer, H, Patro, D.(1994). Analysis of leisure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4), 309-321.
- [5] Driver, B. L., & Bruns, D. H.(1999). Concepts and uses of the benefits approach to leisure. In E. L. Jackson & T. L. Burton (Eds.), *Leisure studies: Prospec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p. 349-369). State College, PA: Venture.
- [6] Greene, W.(1993). *Econometric Analysi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7] Ham, S., Hwang, J. H., & Kim, W. G.(2004). Household profiles affecting food-away-from-home expenditures: A comparison of Korean and U. S.

- household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3: 363-379.
- [8] Huh, E.(2000). Leisure Ecpenditure Patterns of Retired and Near-Retired Households.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Unpublished Dissertation.
- [9] Lee, S. G.(2014). A Study On The Demand Model of Leisure Sports Equipment Expendi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8(12): 111-119.
- [10] Leones, J., Colby, B., & Crandall, K.(1998). Tracking expenditures of the elusive nature tourists of Southeastern Arizona.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3): 56-64.
- [11] Lyu, S. O., & Lee, H.(2013). Market segmentation of golf event spectators using leisure benefits.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30(3): 186-200.
- [12] Maddala, G. S.(1992). A note on the estimation of limited dependent variable models under rational expectation. *Economics Letters*, 38(1): 17-23.
- [13] Tobin, J.(1958). Estimation of relationship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Econometrica*, 26: 24-36.
- [14] Ha-Soo, Jang(2019). Study on the Effect of Creative Characteristics of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 Workers Regarding Self-efficacy and Business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7(2): 52
- [15] Zhu Tianyuan(2019).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Eastern and Western Epics through the Comparison of Satan in *Paradise Lost* and *Monkey King in the Journey to the West*.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7(2): 151-157.

※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year 2019.